

전남북서·남해상 6년간 실종 선원 97명 어디에...

# 바다는 말이 없고... 가족은 말을 잃고...

###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애절한 悲歌

#### 해경 1~2주면 수색 완료... 전담팀 구성 시급

지난 2007년 이후 전남 서·남해상에서 실종된 선장·선원 등 97명의 가족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길게는 6년 2개월이 지났지만 행여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해경의 수색은 멈춘 지 오래다. 하지만 가족들은 일손도 잡지 못한 채 여전히 ‘수색중’이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최고 5년 간 사망 신고 불가=지난해 11월 14일 경남 통영 육지도 남쪽 32.1km 해상에서 실종된 김모(63·여·수시 돌산읍)씨, 아들(40)은 현재까지 사망 신고를 하지 못했다. 아버지 이름으로 나오는 각종 고지서도 달라진 게 없다.

아들은 “현재 아버지가 실종된 상태인데, 사망선고를 받기 전까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인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 하루빨리 시신이라도 찾으면 좋을 텐데...”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해경이 예인하던 2.99t급 FRP어선이 바다에 가라앉았다”며 “이 바람에 아버지도, 어선도 모두 사라졌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4일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남쪽 22km 해상에서 신안 선적 9.77t급 대광호 전복사고로 실종된 박모(48·울산시 중구)씨의 형(50)도 “내 눈으로 시신을 보기 전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은 특히 “해경 수색은 멈춘 지 오래됐다. 현재로서는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울먹였다.

육상과 달리, 해상의 경우 많은 경비를 들여 배를 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가족들만으로 수색 작업에 나서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상 실종자 발생시 가족들의 수색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종자 관련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실종 전담팀 구성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수색을 선박 대역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원료한다는 게 해경 측의 설명이다. 이후에는 가족들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육상과 달리, 해상의 경우 많은 경비를 들여 배를 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가족들만으로 수색 작업에 나서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상 실종자 발생시 가족들의 수색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종자 관련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실종 전담팀 구성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수색을 선박 대역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평화기원 노란 리본달기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회원들은 15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구 전남도청 앞에서 남북 군사 대립 해소와 평화를 기원하며 거리 곳곳에 노란 리본을 달는 '광주시민 평화리본 달기 행사'를 진행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여수 둔덕1터널서 차량 추돌 2명 사망

여수박막회장 인근 터널에서 승용차간 추돌사고가 발생해 여성 2명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5일 오후 5시30분께 여주시 둔덕동 둔덕 제1터널 중간 지점에서 순천방향으로 가던 아반떼 승용차(운전자 이모·30)가 앞서가던 마모(52)씨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여성 2명이 숨지고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1명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모의 승합차엔 오는 11월 개교 예정인 해양경찰학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승합차엔 운전자를 포함, 1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

해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승합차 탑승인원(12명)보다 많은 15명이 타고 있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 지점이 직선구간의 점으로 미뤄 과속 운전은 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해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승합차 탑승인원(12명)보다 많은 15명이 타고 있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 지점이 직선구간의 점으로 미뤄 과속 운전은 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동물원 인기스타

### ‘토코 투칸’ 볼수 있을까

#### 시 비상에 가격 올라

#### 우치동물원, 구입 고심



전 세계 다운로드 수만 10억 건이 넘는 인기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Angry Bird)의 실제 모델인 토코 투칸(Toco Toucan) 딱따구리 종류·사진)을 광주우치동물원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우치동물원이 11월 완공하는 열대조류관에 풀어놓을 조류 구입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던 ‘토코 투칸’ 구입 계획이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여파로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동물원 측은 애초 열대조류관(600㎡)을 조성하면서 청금강·홍금강을 비롯, 앵무새, 토코 투칸, 파랑새 등 7종 150마리를 구입해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4000만원의 예산도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던 조류관 조성 계획은 중국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조류 이동 제한 조치로 대만·중국·일본 등에서 구입하려던 계획이 틀어지더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아마존 희귀 열대조류의 상징이면서 동물원 인기스타인 토코 투칸의 경우 800만원 이면 구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사태로 2000만 원까지 뛰어 현재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유일한 동물원임에도, 볼거리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탓에 토코 투칸을 포기하기가 여간 아쉬운 게 아니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앵그리버드 모델로 알려진 토코 투칸을 들여오면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예산이 없어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며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불똥이 우리 동물원에 뭉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우치동물원은 11월 관람용 열대조류 우리·부화실 및 치료실·방사장·먹이주기 체험장 등을 갖춘 열대조류관을 완공,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침 (8796) 김중두



### 한화 김승연회장

#### 향소심서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향소심서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심형 선고를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비를 털어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 무작위 번호 불러 음란한 농담

○생각나는데로 휴대폰 번호를 불러 여성들이 전화를 받으면 음란한 농담을 해온 50대 회사원이 경찰에 달미.

○1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3)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시 20분께 A(여·17)양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 소리를 섞은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10여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한 농담을 해왔다는 것.

○경찰은 김씨 전화를 받은 피해자(26)의 신고로 기지국 확인 작업 등을 거쳐 김씨를 검거한 뒤 10여건의 동중 범행을 확인.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경찰 “땃글사건” 국정원 조직적 개입여부 수사”

### 성적대 의혹은 대가성 집중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재경 경찰청 차장은 최근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1명이 추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안 차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기자회견에서 가진 질때 ‘타타임’에서 “땃글을 단 직원에게 국정원 중간간부가 지시한 부분이 나오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아직 거기까지 나온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실제 국정원 직원인지 확인하려면 강제수사까지 갈 수 있는 사안 아닌가”라는 질문에 “필요한 수사는 다 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 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관련 유력인사들을 소환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대가성 여부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필요할 때 유력인사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고 동영상 외에도 윤씨의 불법행위 정황으로 쓸 만한 것들을 뽑아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파재 전문생산업체

##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100세 시대를 위한 행복한 교육!  
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창의적인 인성을 키우는 교육!!

과명	강사명	교육시간	주	교육연월	수강료(원)	비고	
음악심리치료	이미경	목	19:00~22:00	15	20	300,000	-
전문가과정[초급]							
CEO인간경영 리더십	김기현	목	18:30~22:00	6	30	300,000	인간경영 지도사 2급
미인대칭 평생행복강사	김기현	목	15:00~18:00	6	30	300,000	행복강사2급
다문화상담사	김성구	목	19:00~22:00	10	30	200,000	다문화상담사/다문화교육사 2급 동시 취득
자기주도학습	정승안	금	14:00~16:00	15	30	150,000	자기주도 학습지도사
정서코칭 및 학교폭력예방상담사	김현진 외2명	화	19:00~22:00	15	30	250,000	정서코칭/학교폭력예방상담사
뉴스포츠대권도 [글로벌퍼스쿨생]	신은호	화·수·목	10:00~11:00 14:00~15:00	15	20	200,000	태권도 단종취득
진로코칭	박성균	월·금	9:00~18:00	1	30	300,000	에니어그램기본/심화 자격취득
스포츠마사지1급	정성호	월·목	19:00~22:00	4	30	150,000	스포츠마사지1급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지, 평생학습을 위해 꿈과 재능을 살리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KWANGSHIN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 자격검증비, 재료비, 교재비는 각 과정마다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수강인원이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각 과정을 이수하시면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수료증을 드립니다.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왕성동 36-3  
www.kwangshin.ac.kr